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김 연 수
(백석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변인, 가족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로,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표집되었다. 총 5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 수준은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이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한국문화적응이 36.2%, 모국문화유지가 16.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지원에서 자아효능감 및 가족관계 증진의 중요성, 다양한 근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영향요인,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0년 이후 급증하여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3.6%로 정점에 다다른 후, 2010년 10.8%, 2012년 8.7%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통계청, 2012)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이 가운데 72.9%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결혼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중심점이 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러한 증가는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주제로 한 실증적 연구들(김순규·이주재, 2010; 조민경·김렬, 2010; 정혜영·김진우, 2010; 장덕희·이경은, 2011; 김현실, 2012; 최해지, 2012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은 그들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문화적 환경과는 상이한 타문화권으로의 진입입과 동시에 정착한 곳의 언어와 생활방식 등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문화적응의 개념과 연결된다.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문화적 양상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Redfield et al., 1936: 149)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가 서로 접촉하며 생기는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 등 문화적 양상의 총체적 변화를 일컫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청된다. 여러 연구들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국과는 다른 언어, 식습관 및 음식과 주거양식, 생활방식 및 가치관, 제사나 전통문화, 그리고 가족 내 역할분담 방식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강유진, 1999; 이혜경, 2005; 한건수, 2006; 김연수·박지영, 2010 등),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나가려 노력하는 과정이 문화적응의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은 한국문화에 적응해나가면서도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국 가족에게도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는 두문화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김연수·박지영,

2010), 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가족원들의 이해와 존중의 부족(한건수, 2006)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지원정책 모두에서 이들의 한국문화적응뿐만 아니라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양방향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문화적응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정착지의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단일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지만 이 후에는 정착지의 문화와 모국문화인 원문화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 발생하는 변화로 이를 이해하는 이중차원모델이 문화적응 연구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Berry, 1997; Cabassa, 2003; Castro, 2003). 이중차원모델은 이민자들의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적응과정을 그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모국문화와 정착지의 새로운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조정과 통합과정을 거쳐 문화적 양상에 새로운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정착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인 형태로 개인의 문화적응 과정을 주도해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모국문화의 강점과 전통을 일상생활 가운데 조화롭게 잘 통합시켜나갈 수 있는 문화적응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동화보다는 상호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적응의 바람직한 형태로 사료되며(정진경·양계민, 2004: 106), 이러한 양방향의 문화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와 사회적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문화적응 관련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연구(권복순, 2009; 지은진 외, 2012), 문화적응을 유형화하여 관련 특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최혜지, 2009), 그리고 질적 조사에 기반하여 문화적응의 경험이나 과정을 다룬 연구(구차순, 2007; 한청이 외, 2008; 김연수·박지영, 2010)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와 균형의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이를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는 단선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적응을 이론적으로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면서도 연구의 전개에서는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습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단일차원적 접근을 취하고 있어 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최혜지, 2009: 164)이 지적되고 있어, 문화적응에 대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응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사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연구자

마다 연구에서 이를 개념화하거나 측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연구에는 문화적응을 문화적응 유형(최혜지, 2009) 및 문화적응 태도(권복순·임보름, 2013)로 구분한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한 경우, 또는 서구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문화적응을 측정하거나 (장덕희·이경은, 2011; 최혜지, 2012), 연구자가 임의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한 경우 (조창환·성윤희, 2010; 박철민, 2012)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의의가 크지만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이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언어, 관습 및 전통, 사회적 교류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특성들을 담고 있는 척도를 사용한 문화적응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은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는 과정인데, 실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마다 연구자의 관심이 주어지는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권복순, 2009), 가족 결속력(장덕희·이경은, 2011), 남편의 아내문화수용(성현란, 2011), 사회적지지(장덕희·이경은, 2010) 및 사회적 배제(최혜지, 2012) 등의 변인들과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 되어왔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 및 가족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인들이 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문화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문화적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두 차원인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과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측면을 각각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주 당시부터 주어진 여성의 귀속적 특성과 한국에 온 후 주어진 특성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건강한 자아기능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 건강한 가족기능을 대변하는 가족관계 변인,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받는 차별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변인들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적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의 개념

문화란 “한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 규범, 생활양식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정혜영·김진우, 2010: 32)을 지닌 것으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화적응이란 근원이 다른 두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로서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원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 일어나는 문화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적응 과정”(Gibson, 2001: 19)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관, 관습, 언어, 사회체계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원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의 변화로 개념화”(박철민, p. 416)된다.

또한 문화적응은 “근원이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으로 문화적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Castro, p. 8)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응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학자인 Berry와 그 동료들은(1989) 문화적응을 원문화를 유지하는 차원과 주류 사회의 문화에 대한 접촉과 참여의 독립된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원문화를 유지하고 주류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 이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문화적응을 이와 같이 원문화 유지와 정착지 문화 접촉 및 습득이라는 독립된 두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중차원모델(bidimensional model)로 일컬어진다.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초기 정착지 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고려하여 이를 개인의 원문화에서 정착지

의 주류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보는 동화모델인 단일차원모델(unidimensional model)에서 이중차원모델로 발전하였다(Castro, 2003; Cabassa, 2003). 또한 문화는 한 사회의 의사소통, 관습, 생활방식 등이 모두 집약된 개념구성체이므로 문화적응에 대한 측면에서는 한 사회의 언어, 음식, 대중매체,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과 같은 여러 측면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Berry et al., 1989; Suinn et al., 1992; Stephenson, 2000), 이러한 문화적응의 특성은 다차원적 모델(multidimensional model)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응 연구 상의 이 같은 변화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문화적응 연구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영역과 모국문화 유지에 대한 영역의 두 측면을 각각 살펴보는 것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연구한 최혜지(2009), 권복순과 강보름(2013)의 연구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창환과 성윤희(2010)의 연구에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응 연구에서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은 한국의 언어, 전통, 음식에 대한 적응 및 한국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국문화유지와 관련된 측면은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모국의 문화적 전통이나 가치를 유지하고 이를 한국인에게도 전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문화적응이란 언어, 음식,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원문화와는 다른 정착지의 문화에 새롭게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변화와 재적응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개념에서는 이중차원모델과 다차원적모델이 현재 문화적응 연구에서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민자의 경우 이와 같은 문화적응의 결과는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Berry, p. 13), 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2.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Berry와 Sam(1997: 301)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집단적 수준에서는 모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태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정

착지의 이민정책, 이민에 대한 태도 및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주류 사회 요인 등이 포함되었으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 사회경제적 상태 및 종교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문화적 및 개인적 요인들, 그리고 이민 동기 등이 제시되어(Castro, p. 27), 문화적응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측면의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 가족적 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연령, 교육수준, 정착지에 체류한 거주기간, 직업유무, 국적취득 여부, 종교 등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일찍 그리고 장기간 노출될수록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젊은 연령층일수록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더욱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Mendoza, 1984; Marin, 1992; Franco et al., 1998: 37 재인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해외연구로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연구에서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기간, 이민 당시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는 미국과 히스패닉 문화적응 양쪽 모두의 문화적응 수준과 관련성을 지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ranco et al., 1998).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국거주기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형원, 2010),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연구에서도 미국 이주기간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으로 파악되었다(노길희, 2012). 또한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정보획득과 이해가 쉬우므로 문화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Bass, 2003; 노길희, p. 164 재인용)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학력은 여성의 한국문화수용태도나 모국문화전달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어(권복순·임보름, 2013),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과 문화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직업이 있는 여성일수록 높은 원문

화정체감과 높은 이주문화정체감을 지닌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는 빈도가 높았으며, 직업이 없는 여성은 원문화정체감과 이주문화정체감이 모두 낮은 주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최혜지, 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문화적응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유무와 문화적응과의 관계에서는 국적취득자일수록 한국문화수용 태도가 높으며 국적취득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적취득이 모국문화전달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권복순·임보름, 2013), 국적취득은 문화적응의 두 차원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는 개인적 차원의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데(Berry & Sam, 1997),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성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검증된 바 있어(Mui & Kang, 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기존 연구에서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종교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희박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최혜지(2009)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4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각각 살펴본 결과 여성의 국적,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및 직업유무는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어 문화적응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과 문화적응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으나 한국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이 다르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양과 질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거주지역과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 개인내적 변인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다루는 연구에서 개인의 내적 자질로서 자아의 기능과 관련된 변인들은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으로 빈번히 연구된다. 이민자의

적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자아존중감(권복순, 2009), 자아효능감(Kim & Omizo, 2005; Saissy & Katherine, 2009; 이권일, 2011), 자아탄력성(이은희, 2009; 김현숙 외, 2010) 등과 같이 개념화하여 자아의 기능을 측정하고 문화적응이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2009).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부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현숙 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자아의 긍정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변인을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해 고찰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권복순,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이민자의 자아가능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해 갖는 느낌과 생각인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을 자아의 건강한 기능을 대변하는 변인으로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을 믿는 정도”(박현선, 1998: 31)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나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지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아효능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효능감과 문화적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aissy & Katherine, 2009), 국내의 북한이탈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이 분리와 주변화의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권일, 2011).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아효능감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가족적 변인

가족은 개인의 일차적 자원체계이자 지지원으로서 가족의 건강한 기능은 이민자의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적응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에서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의 중요성이 파악된 연구로 한청이 외(2008)의 연구에서는 남편 및 시부모와 맺는 좋은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다룬 연구에서 정서적 의사소통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보다 건강하게 적응하는 데는 한국인 남편의 친밀한 태도 및 비언어적 부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이 검증되었다(지은진 외, 2012).

유사한 주제의 연구로 경남 및 경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어(박철민,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가족의 역할과 도움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덕희·이경은, 2011), 이은희(2009)의 연구에서도 남편과의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원들과 맺는 관계의 질¹⁾이 중요함을 인식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1)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 간 결혼생활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부적응도 문화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 가족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문화적응이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으로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연구의 초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적응과 문화적응의 관계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보다는 이를 포함한 전체 가족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라.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차원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및 평가적 차원의 지원과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민자의 문화적응이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사회적 지지의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지적인 남편이 있는 경우와 본국 출신의 친구가 있는 경우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Naidoo, 1985; 노길희, p. 164 재인용)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한국문화수용 정도로 측정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순규·이주재, 2010), 경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리말서비스, 결연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 등의 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장덕희·이경은, 2010). 또한 경남 및 경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연구에서도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및 실제적 지원 등으로 측정된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의 여부로 측정된 공식적 지지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철민,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에 대한 차원과 모국문화에 대한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수용에는 사회적 지지가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으나 모국문화전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권복순·임보름, 2013)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비공식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받게 되는 공식적 지지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측면으로 “사회로부터의 분리감과 차별감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장덕희·이경은, 2010: 76)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연구에서 사회적 및 상황적 변인으로서 집단적 수준에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대표적 변인이다(Ethier & Deux, 1994; Castro, p.27).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와 문화적응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문화

정체감은 교육적 배제에 의해, 원문화정체감은 교육적 배제와 사회참여로부터의 배제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지, 2012).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배제와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로 부터 느끼는 차별감으로 측정하여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년수, 한국거주기간 및 거주지역, 한국국적 취득 여부,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를, 개인내적변인으로 자아효능감을, 가족변인으로 가족관계를, 그리고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한국 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측면의 특성들이 문화적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집 방법은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NGO 및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의 6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 시에는 연구자 또는 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설문조사의 목적과 응답 방식 등을 설명해주어 연구 대상자들의 설문조사 응답에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무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556부의 자료가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 문화적응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측정에는 한국문화적응 척도와 모국문화유지 척도의 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척도’(김연수, 2011)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국문화적응척도는 총 26문항이며, 한국어 이해 및 구사,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 한국인과의 교류, 한국정체성, 한국대중매체 선호, 그리고 한국음식선호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국문화유지척도는 총 19문항으로 모국어 사용, 모국전통유지, 모국인과의 교류, 모국정체성, 모국대중매체 선호, 그리고 모국음식선호의 6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적응 수준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문화적응척도가 alpha값 .93, 모국문화유지척도는 alpha값 .87로 검증되었다.

나. 자아효능감

개인 내적 변인으로 개인의 건강한 자아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박현선(1998)의 ‘자아효능감’²⁾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점을 지니며, 서구에서 개발된 자아효능감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것이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값 .84로 산출되었다.

2)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를 자아효능감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아효능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척도는 Hernandez(1993)와 Sherer et al.(1982)의 자아효능감 척도,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것이다. 근거 척도의 출처 및 상세한 내용은 박현선(1998) 참조.

다. 가족관계

가족변인으로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양옥경과 김연수(2007)의 '축약형 가족관계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가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측정하는 정서친밀영역과 서로 다른 의견이나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수용존중영역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좋은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값 .97로 나타났다.

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에는 Zimmet et al.(1988)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가 사용되었다. 원척도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자의 세 근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각각 4문항씩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로 이를 통합하여 전체 4문항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측정방식에는 5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값 .93으로 산출되었다.

마. 지각된 차별감

사회적 차원의 변인으로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측정은 Sandhu &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가운데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인 총 8문항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척도의 측정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값 .8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Anova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추가 검증방법으로는 scheffe test가 사용되었으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에 대한 검증은 VIF값과 tolerance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균연령 30.4세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출신국은 베트남 36.2%, 중국 29.2%, 필리핀 11%, 일본 8.6%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36.3%, 전문대졸이 18.1%, 대졸이 12.5% 등으로 연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상태는 대부분 초혼으로 90%정도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한국거주기간은 평균이 3년 10개월로 1~3년 31.4%, 3~5년 19.8%, 5~10년 21.3% 등이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23.4%, 중소도시 57%, 농어촌 및 산촌 19%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자는 68.1%였으며, 직업 및 파트타임 일이 있는 자가 32.2%, 그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21.8%였다. 종교는 기독교 및 천주교 25.3%, 불교 28.9%, 무교가 33.8%였다. 월평균 가족수입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이 16%였고, 아예 가족수입을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자가 35.8%로 연구대상자들이 가족 내에서 경제적 부분과 관련된 권한이나 역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	변수	항목	빈도	(%)	
연령	19~29세	291	(53.0)	거주 지역	대도시	128	(23.4)	
	30~39세	189	(34.4)		중소도시	311	(57.0)	
	40~49세	61	(11.1)		농촌/어촌/산	104	(19.0)	
	50세 이상	8	(1.5)		기타	3	(0.5)	
평균연령 30.4세 / 표준편차 7.2세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1	(7.4)	
출신 국가	베트남	201	(36.2)		중학교 졸업	127	(22.9)	
	중국	162	(29.2)		고등학교 졸업	201	(36.3)	
	필리핀	61	(11.0)		전문대학 졸업	100	(18.1)	
	일본	48	(8.6)		대학교 졸업 이상	75	(13.6)	
	몽골	20	(3.6)		기타	10	(1.8)	
	태국	19	(3.4)	한국 거주 기간	3년 미만	274	(50.3)	
기타*	44	(8.0)	3~5년 미만		108	(19.8)		
결혼 상태	초혼	496	(89.9)		5~10년 미만	116	(21.3)	
	재혼	51	(9.2)		10년 이상	47	(8.6)	
	기타	5	(1.0)	평균거주기간 46.6개월 / 표준편차 41.6				
월평균 가족수입	200만원 이하	238	(42.8)	자녀 유무	있음	376	(68.1)	
	201~300만원	89	(16.0)		없음	162	(29.3)	
	301만원 이상	30	(5.4)		임신 중		14	(2.5)
	모름+무응답	199	(35.8)					
종교	기독교/천주교	134	(25.3)	직업 유무	있음	178	(32.2)	
	불교	153	(28.9)		없음	374	(67.8)	
	기타*	64	(12.1)	한국 국적 유무	있음	120	(21.8)	
	없음(무교)	179	(33.8)		없음	431	(78.2)	

2. 문화적응 평균

연구대상자의 한국문화적응 및 모국문화유지의 평균 및 각 하위영역의 평균은 <표 2>와 같이 산출되었다. 이들의 한국문화적응 전체의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3.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국문화유지 전체의 평균점수는 3.46점으로

역시 중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적응 척도의 하위영역의 점수에서는 한국대중매체 선호와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의 평균이 다른 영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모국문화적응 수준의 경우에는 모국인과의 교류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모국전통 및 관습 유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모국전통이나 관습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표 2. 한국문화적응 및 모국문화유지 전체 및 하위영역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문화적응 (전체)		3.50	.57	모국문화유지 (전체)		3.46	.56
하위 영역	한국어 이해 및 구사	3.18	.79	하위 영역	모국어 사용	3.32	.88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	3.67	.72		모국전통 및 관습유지	3.10	.82
	한국인과의 교류	3.46	.79		모국인과의 교류	3.58	.74
	한국인 정체성	3.32	.81		모국 정체성	3.62	.80
	한국 대중매체 선호	4.01	.77		모국 대중매체 선호	3.52	.90
	한국음식 선호	3.49	.78		모국음식 선호	3.56	.86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응 차이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한국문화적응 수준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대, 출신국, 수입,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 및 직업 유무 등에 따라 문화적응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한국문화적응에 관해 살펴보면, 연령대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출신국에 따라 한국문화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일본 출신의 여성보다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이 수입을 모르거나 무응답한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3년 미만 거주 집단보다 5~10년 거주 집단이 유의미하게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자가 농어촌 및 산촌에 거주하는 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 여성들의 한국문화적응 정도가 농어촌 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집단과 직업이 있는 집단이 한국국적 미취득 집단 및 전업주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을 보여 주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과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낮아졌는데, 20대인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출신국에서는 중국 및 베트남 출신이 일본 출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보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특히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3년-5년 미만 집단과 10년 이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 국적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종교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 밖에 학력, 수입, 거주 지역 및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차이

변인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항목	빈도	평균	F/t	항목	빈도	평균	F/t
연령대	19~29세	291	3.49	1.32	19~29세+	291	3.50	5.26**
	30~39세	189	3.56		30~39세	189	3.46	
	40세 이상	69	3.44		40세 이상+	69	3.26	
출신국	중국+	162	3.54	5.00**	중국+	162	3.53	3.95**
	일본+	48	3.18		일본+	48	3.21	
	베트남+	201	3.58		베트남+	201	3.49	
	필리핀	61	3.49		필리핀	61	3.49	
	기타	83	3.46		기타	83	3.35	
학력	중졸 이하	168	3.45	1.91	중졸 이하	168	3.45	.13
	고졸	201	3.56		고졸	201	3.45	
	전문대졸 이상	185	3.49		전문대졸 이상	185	3.47	
수입	200만원 이하	238	3.53	4.04**	200만원 이하	238	3.45	1.35
	201만원~300만원	89	3.52		201만원~300만원	89	3.36	
	301만원 이상+	30	3.80		301만원 이상	30	3.51	
	모름/무응답+	199	3.43		모름/무응답	199	3.50	

변인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항목	빈도	평균	F/t	항목	빈도	평균	F/t
한국거주 기간	3년 미만+	274	3.40	6.59***	3년 미만+	274	3.53	13.97***
	3~5년 미만	108	3.56		3~5년 미만+	108	3.53	
	5~10년 미만+	116	3.67		5~10년 미만	116	3.39	
	10년 이상	47	3.57		10년 이상+	47	3.00	
거주지역	대도시+	128	3.60	13.51***	대도시	128	3.49	2.01
	중소도시+	311	3.55		중소도시	311	3.47	
	농어촌 및 산간지역+	104	3.25		농어촌 및 산간지역	104	3.36	
한국국적	있음	120	3.71	-4.55***	있음	120	3.30	3.47**
	없음	431	3.44		없음	431	3.50	
직업	있음	178	3.64	-3.76***	있음	178	3.44	.49
	없음	374	3.44		없음	374	3.47	
종교	있음	351	3.51	-.86	있음	351	3.41	2.49*
	없음	179	3.47		없음	179	3.54	

*p<.05, **p<.01, ***p<.001 + scheffe 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임

4.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³⁾

가.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개인내적, 가족적 및 사회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4단계에 걸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에 대한 검증은 Tolerance값 .47-.97, VIF 값 1.03 - 2.09로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3) 연구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한국문화적응은 한국거주기간,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된 차별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문화유지는 연령 및 한국거주기간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적응은 상관계수 .12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1~.64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분석 표 제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결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투입된 1단계 분석결과 교육년수와 종교유무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한국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낮은 연령일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과 직업이 있을수록 한국문화적응수준이 더 높아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 자아효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자아효능감은 한국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9% 증가시켜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한 자아기능이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3단계분석에서는 가족관계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10.3%나 증가시켰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4단계 분석에서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투입한 4단계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과 가족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변인들의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2.6%였다. 이 가운데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관계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가족체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4)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거주지역: 1=도시지역, 0=농어촌 및 산촌, 한국국적: 1=있음, 0=없음, 직업: 1=있음, 0=없음, 종교: 1=있음, 0=없음으로 더미변인 처리하였음. 수입의 경우 모름 및 무응답이 전체의 35.8%로 매우 높게 산출되어 회귀분석모형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제외하였으며, 출신국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 매우 다양하여 더미변인 처리할 경우 연구모형에 너무 많은 출신국 관련 더미변인이 삽입되게 되므로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음(출신국과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은 출신국별 문화적응 차이분석 결과를 참조).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 영향요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인구사회학적 변인	상수	3.38	-	2.52	-	1.91	-	1.78	-
	연령	-.01	-.18*	-.01	-.18**	-.01	-.15**	-.01	-.14**
	교육년수	.00	.05	.00	.04	.00	.06	.00	.05
	한국거주기간	.00	.19**	.00	.21***	.00	.20***	.00	.20***
	거주지역	.35	.24***	.28	.19***	.19	.13**	.20	.13**
	한국국적 유무	.17	.12*	.17	.12**	.16	.11*	.15	.10*
	직업 유무	.12	.10*	.08	.06	.06	.05	.05	.04
	종교 유무	.02	.01	.013	.03	.04	.04	.05	.04
개인내적 변인	자기효능감			.27	.30***	.16	.18***	.16	.18***
가족변인	가족관계					.25	.35***	.24	.33***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							.02	.04
	지각된 차별감							.03	.03
R ²		.132		.222		.325		.326	
Adjusted R ²		.119		.208		.312		.309	
R ² change		.132***		.090***		.103***		.002	
F		9.67***		15.83***		23.68***		19.28***	

*p<.05, **p<.01, ***p<.001

나.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대한 검증결과 한국거주기간과 종교유무가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종교가 없는 집단일수록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단계분석에서 자아효능감 변인을 투입한 결과 자아효능감은 모국문화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을 1.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분석에서 가족관계 변인을 추가한 결과 가족관계는 모국문화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1%의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마지막 4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와 지각된 차별감 변인을 투입한 결과 두 변인 모두 모국문화유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의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모든 변인이 투입된 4단계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국거주기간, 자아효능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지각된 차별감이었으며,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은 16.2%로 산출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유지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인구사회학적 변인	상수	3.58	-	3.21	-	3.03	-	2.36	-
	연령	.00	.01	.00	.02	.00	.03	.00	.05
	교육년수	.00	.00	-.00	-.00	.00	.00	-.00	-.01
	한국거주기간	-.00	-.26***	-.00	-.26***	-.00	-.26***	-.00	-.26***
	거주 지역	.08	.06	.06	.04	.03	.02	.06	.04
	한국국적 유무	-.01	-.02	-.02	-.01	-.02	-.02	-.06	-.04
	직업유무	.03	.02	.01	.00	.00	.00	-.01	-.01
	종교 유무	-.10	-.09*	-.10	-.08	-.09	-.08	-.08	-.07
개인내적 변인	자기효능감			.11	.14**	.08	.10*	.08	.09*
가족변인	가족관계					.07	.11*	.05	.07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							.09	.15*
	지각된 차별감							.16	.20***
R ²		.089		.108		.118		.162	
Adjusted R ²		.074		.092		.100		.141	
R ² change		.089***		.019**		.010*		.046***	
F		6.18***		6.67***		6.55***		7.73***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착지의 문화와 모국문화인 원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문화적응의 두 중심축으로 고려하는 이중차원모델에 근거를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측면으로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인구사회학적, 개인내적, 가족적 및 사회적 변인들로 살펴보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다양한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이 모두 3점을 넘어 양쪽 문화 모두 중간이상의 적응과 유지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국문화유지의 평균보다 한국문화적응의 평균이 다소 높게 산출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두 척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적응해나가면서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이는 문화적응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향유해야 할 자산으로서, 이주자가 정착지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 보다는 양방의 변화를 통한 상호통합이 문화적응의 바람직한 방향(정진경·양계민, p. 106)이라고 보는 시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동화보다는 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적응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파악되었으며, 개인내적, 가족 및 사회적 변인으로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 가운데 자아효능감과 가족관계⁵⁾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에

⁵⁾ 가족관계 변인의 경우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영향력 최종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의 영향력으로 인해 통계적 영향력이 감소되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산출되지 않았지만 그 전 단계의 분석에서는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에서도 이 두 변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지원에서 자아기능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한 권복순(2009)의 연구결과와도 견주어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아기능으로서 자아효능감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시켜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가족관계의 질이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음은 가족결속력이 다문화가족 여성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문화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장덕희·이경은, 2011) 및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과 시부모와 맺는 좋은 관계가 이들의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한청이·천성문·김은정, 2008)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친밀하며 응집력 있는 건강한 가족관계는 이주의 주요한 목적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한 자아기능과 가족관계는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생활해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및 가족적 자질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모국문화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사는 통합적 문화적응 유형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변인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서는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가 조금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여성들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데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문화적응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및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장덕희·이경은, 2010; 김순규·이주재, 2010; 박철민, 2012; 권복순·임보름, 2013 등)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지의 근원별로 구체화시켜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적응에서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한국 문화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정적 상관성이 유의미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두 변인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각된 차별감 변인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산출되지 않은 반면, 모국문화유지와는 정적인 관계를 지니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생활에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고⁶⁾,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결과에서는 기존 연구들(Mendoza, 1984; Martin, 1992; Franco et al., 199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이 젊은 층일수록 한국문화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연령과 모국문화유지와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로 문화적응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최혜지(2009)의 연구에서는 통합유형의 이주여성이 보이는 특성 중 하나가 낮은 연령으로 제시되어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구의 연구결과와 같이 젊은 연령층일수록 더욱 한국문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문화적응의 양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 반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경향은 낮아져 거주기간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문화적응의 양차원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민자 대상 연구에서 이주기간이 이주한 사회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Franco et al., 1998; 노길희, 2012)과 유사한 결과로 이주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문화적응 지원서비스의 필요

⁶⁾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지각된 차별감과 한국문화적응이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으므로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적응수준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을 지지해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 거주기간이 긴 장기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한국문화에 적응되고 동화되어 모국문화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관습이나 전통 등을 잊고 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가족 및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준다.

이 외 변인으로 거주지역과 한국국적 유무의 두 변인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었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일수록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해주는 각종 사회적 지원 기관 및 단체가 더 많은 국내 복지서비스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며, 동시에 농어촌 지역일수록 지역사회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경향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 경향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문화적응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책마련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국적 취득이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한국거주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한국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한국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일수록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경향성이 여성의 한국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권복순과 임보름(2013)의 연구에서 한국 국적 취득여부가 한국문화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자문화전달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한국문화에 더욱 수용적이고 적응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일수록 한국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특성이 여성의 한국문화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 수준,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는 문화적응의 두 차원 모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권복순과 임보름(2013)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과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모국에서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국생활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이다.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와 관련해서는 단지 직업이나 종교가 있고 없음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떤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지, 종교가 있을 경우 신앙심이나 영성이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고려가 문화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 필요함을 지각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두 문화지향적인 접근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는 문화적응의 독립된 측면이지만 상반되는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며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함께 증진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이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두 문화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화적응 지원의 목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정책에도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의 일차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서 자아효능감은 한국문화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국문화를 유지하는데도 긍정적 기여를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임상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비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효능감은 인생발달주기를 통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크고 작은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성공적인 성취경험들이 축적된다면 더욱 발달되고 증진될 수 있는 자아기능이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에서 이들이 긍정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개입이 중요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한데,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이 지지적인 자원체계로서 여성이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둔 가족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접근에서 특히 가족관계의 질과 관련하여 가족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

하며, 보다 친밀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 수립에서 가족기능 강화가 주요 기본 목표로 설정되며, 동시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전략이 세분화되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족관계가 좋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사는 경향성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상호 친밀하고 수용적인 가족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서도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부여해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의 마련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지지의 근원별로 이를 증진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만나는 모국 친구 또는 한국인과의 교류에서도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각각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지역별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는 특히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이민자 집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거주기간이 짧은 신규 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관 등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을 지속화해야 하며, 장기 거주자의 경우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이들의 모국문화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을 높이는 반면,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착지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점차 정착지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양상을 예측해보게 하는 결과로서 한국거주기

간이 장기화되더라도 모국문화의 전통과 자부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의 조성이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통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가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문화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한국문화 적응 수준이 좀 더 높은 자들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전국단위에서 다문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사회적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에 어떤 문화적응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주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산출되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의 경우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측정 시 지지의 근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측정하지 못한 점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로 나누고, 보다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로 구체화시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아닌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문화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이들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이중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김연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이며,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및 빈곤아동 가족 지원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yskim@bu.ac.kr)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pp.61-80.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 부산.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pp.5-32.
- 권복순, 임보름(2013).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의 영향요인 연구. *민족연구*, 53, pp.130-152.
- 김순규, 이주재(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pp.5-20.
- 김연수, 박지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pp.269-298.
- 김연수(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척도 개발연구. *여성연구*, 81(2), pp.103-146.
- 김현숙, 김희재, 최송식(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pp.153-175.
- 김현실(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pp.39-70.
- 노길희(2012). 뉴욕시 거주 한인 노인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pp.159-189.
- 박철민(2012).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pp.413-436.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박형원(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재영 한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pp.308-316.
- 성현란(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pp.219-239.
- 양옥경, 김연수(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12(2), pp.103-129.
- 이권일(2011). 북한이탈노인의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케어복지학*, 15, pp.129-151.
- 이은희(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pp.73-94.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pp.73-106.
- 장덕희, 이경은(2010).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효과. *젠더와 문화*, 3(1), pp.67-95.
- 장덕희, 이경은(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가족요인의 영향. *농촌사회*, 21(2), pp.103-139.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pp.101-136.
- 정혜영, 김진우(2010).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pp.29-55.
- 조민경, 김렬(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pp.263-289.
- 조창환, 성윤희(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54(4), pp.374-397.
- 지은진, 최지명, 김교현, 권선중, 박은진, 이민규(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pp.243-252.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pp.163-194.
- 최혜지(2012).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8(1), pp.217-244.
- 통계청(2012). *국제결혼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 2013. 9. 15.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pp.195-243.
- 한청이, 천성문, 김은정(2008).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in immigrant-married woman in south Korea. *상담학연구*, 9(4), pp.1607-1624.

- Bass, W. S. (2003). *The acculturation stress/employee withdrawal relationship*.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노길희(2012)에서 재인용.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Bu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 pp.185-20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68.
- Berry, J. W., Sam, D.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Boston: Allyn and Bacon, pp.291-326.
- Cabassa, L. J.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2), pp.127-146.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Greenwood Press: Westport · Connecticut · London.
- Ethier, K. A., Deux, K. (1994). Negotiating social identity when contexts change: Maintaining identification and responding t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pp.243-251.
- Franco, F., Cuadra, A., Tabol, C. E., Zea, M. C., Peterson, R. A. (1998).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for Latin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Multicultural Nursing & Health*, 4(3), pp.37-41.
- Gibson, M. A.(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1), pp.19-23.
- Kim, B. S. K., Omizo, M. M. (2005).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collective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general self-efficacy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pp.412-419.
- Marin, G. (1992).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among Hispanics. In K. F. Geisinger (Eds.), *Psychological testing of Hispanic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235-251. Franco et al. (1998)에서 재인용.
- Mendoza, R. H. (1984). Acculturation and sociocultural variability. In J. L. Martinez,

- Jr. & R. H. Mendoza(Eds), *Chicano Psychology 2nd ed.*, New York: Academic Press Inc., pp.61-75. Franco et al. (1998)에서 재인용.
- Mui, A. C., Kanng, S. (2006).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sian immigrants elders, *Social Work*, 51(3), pp.243-255.
- Naidoo, J. (1985).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an in Canada. In I. R. Langunes, Y. H. Poortinga(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 pp.76-92, 노길희(2012)에서 재인용.
- Redfiled, R., Linton, R., Herscovits, M. J.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pp.149-152.
- Saissy, M., Katherine, C. (2009). Acculturat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mong Chinese immigrants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4), pp.291-300.
- Sandhu, D. S.,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pp.435-448.
- Stephenson, M. (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ephenson Multigroup Acculturation Scale(SMAS), *Psychological Assessment*, 12(1), pp.77-88.
- Suinn, R. M., Ahuna, C.,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pp.1041-1046.
- Zimmet, G. D., Dahlem, N. W., Zimmet, S. G.,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 pp.30-41.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im, Yoen Soo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which is measured by a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a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556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Keonggi, and Chungcheong area recruited from various community service agencies to complete a serie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ge, the length of stay in Korea, residence area, Korean nationality,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ffected the adaptation level to Korean culture. Among these variables the mos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were family relation and self-efficacy. Also,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influenced on the maintenance level of mother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tmosphere respec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ther culture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Key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Level,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